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9호 【루게 제24512호】 주제103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의 지도 밑에 4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회의에는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하며 인민생활향
상과 부강조국건
설을 힘있게 다그
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기치
를 높이 들고 자주
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

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
하였다.
내각부총리들과 일부 당중
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
장, 부부장들이 방청으로 참
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
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보강
문제가 토의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 결
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제출할 국가지도기관구성안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해당 의정들에 대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존엄
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

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
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데
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력
사적인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 천만년 길이 빛나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 개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강성 번영하는 태양조선의 영광과 자랑을 더해 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개관되었다.

만민칭송의 대보물고인 국제친선전람관에 새로 꾸러진 어버이장군님의 랍상관은 선군의 기치높이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시대와 역사를 정의와 평화의 한 길로 이끄신 불세출의 대성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최고정화이며 백두산대국의 만년제보이다.

랍상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야전 부차림으로 거연히 서시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축복해주시는 모습을 형상한 랍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인사와 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새로 꾸러짐으로써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어버이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친솔위인상을 무궁토록 빛내일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친선전람관은 태양민족, 태양조선의 더없는 대국보존은 누리에 자랑떨치게 되었다. 개관식이 8일에 진행되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관계부서 임원들, 국제친선전람관 임원들과 종업원들, 군인들과 건설자들도

랍상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기여한 단위 임원들과 근로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위원립상관 판공 일행이 개관식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진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 개관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랍상을 국제친선전람관에 정중히 모시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커다란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만민의 어버이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을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결한 품모를 지니시고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로 명도하시어 시대와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주시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으셨다.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넓은 도량, 비상한 정력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어 세계정치사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정의와 평화의 상징, 인류자주위업의 결솔한 령도자로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으며 몸소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어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형제적우의의 화원을 꽃피우시었다. 하기에 중국인민은 김정일동지를 가장 친근한 벗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이번에 중국위원립상관 성원들이 온갖 지성을 다 바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랍상을 성의껏 형상하고 우리 창작가들이 장군님의 랍상을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생전의 모습 그대로 더 잘 형상완성할것은 절제수위에 대한 중국인민과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흥모심과 가장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랍상과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랍상을 훌륭히 형상하여 국제친선전람관에 정중히 모실수 있도록 하여준 중국위원립상관 성원들이 이번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랍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신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국제친선전람관의 전체 성원들은 전람관에 랍상으로 정중히 모신 백두산위인들의 기록하신 영상을 매일 비움는 남다른 연예를 가슴깊이 새기고 국보보존의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귀중한 선물들과 표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목회 중국위원립상관 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 군사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령도로 조선인민을 이끄시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평생 중조인민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중국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역사와 더불어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랍상에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 다음 전시된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민족의 대경사들로 뜻깊은 4월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랍상관이 개관된것은 주체의 선군태양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성의 역사를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께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압축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수천수만리 전선길을 주름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의 세계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몇몇 전정렬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전선길에서 락을 찾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라고, 인민군대만 강하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권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수 있지만 군대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끝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라고, 인민군대만 강하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권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수 있지만 군대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끝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라고, 인민군대만 강하면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권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수 있지만 군대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끝났나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스러운 그 부름을 되새기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숭엄히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조국의 운명,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자신과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당 중앙위원회 책임임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선군혁명위업완성과 관련한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임원들에게 자신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인민군부대

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셨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이렇게 서두를 메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오늘도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날이라고,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때가 엇저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었고 깊은 감회에 잠기시어 영광스러운 면에서도 시련에 찾던 지난날을 회고하시었다. 그 중임을 맡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공화국의 국력강화와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우리

후대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임원들에게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적들의 그 어떤 시도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높이 떨쳐갈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유훈대로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넣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날의 숭고한 뜻을 간직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완성하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시었다.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강성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립 정 조

본사기자 김인선

